

SBS 학습 교재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바울 서신의 면류관”

“가장 신적인 작품”

“모든 서신 가운데 가장 왕다운 서신”

“이 서신은 순수한 음악이다 ... 우리가 여기서 읽는 것은 노래하는 진리, 음악으로 옮겨진 교리다”

“에베소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다.”

“바울 서신의 정점”

이 서신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원과 지평, 그 충만함과 영향을 잘 그려냅니다. 이 신앙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닳을 내리고 있습니다.

Hans-Jörg Ronsdorf / 캠프텐 그리스도인 교회(Christliche Gemeinde Kempten), 알고이(Allgäu)

차례

- 에베소라는 도시
- 서신의 수신자
- 바울, 디모데, 요한 그리고 에베소
- 서신을 쓴 계기
- 서신의 내용과 구성
- 하늘에 속한 곳: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무엇인가?
- 선택(예정): 단지 논쟁거리일 뿐인가?
- 아들 됨과 자녀 됨: 그저 같은 것인가?
- 앉으라 – 행하라 – 서라: 하나님의 순서
- 신약의 교회: 언제부터 있었는가?
- 하나님의 충만 – 만물의 목표
- 구약의 모형론과 에베소서
-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나 됨, 기능, 대표
- 다섯 가지 사람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 새 사람: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자와 보이지 않는 세계

-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영적 전쟁, 그런데 어떻게?
- 에베소와 골로새
- 참고 문헌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라틴어 Ephesus, 헬라어 **Ἔφεσος**, 튀르키예어 Efes)는 고대 소아시아(오늘날의 튀르키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그리스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이즈미르(izmir)에서 남쪽으로 약 70 km, 튀르키예 서해안(에게해)에서 멀지 않은 곳, 고대의 이오니아 지방에 있습니다. 고대에는 바로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퇴적 작용과 기후 및 지진으로 인한 변화 때문에 해안선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오늘날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안쪽에 있으며, 더 이상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인구가 20만 명을 훨씬 넘어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속주 총독(Proconsul)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공공 건축물이 세워졌는데, 그 비용은 도시와 부유한 시민들이 함께 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황제 숭배 안에서 숭배받던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 황제와 하드리아누스(Hadrian)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큰 무역로와 항구 덕분에 선교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국제적이었고, 여러 문화와 종교가 타오르고 녹아드는 용광로였습니다. 에베소는 여신 아르테미스(아데미)와 그 거대한 신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들에 대한 숭배, 오컬트와 주술은 이 도시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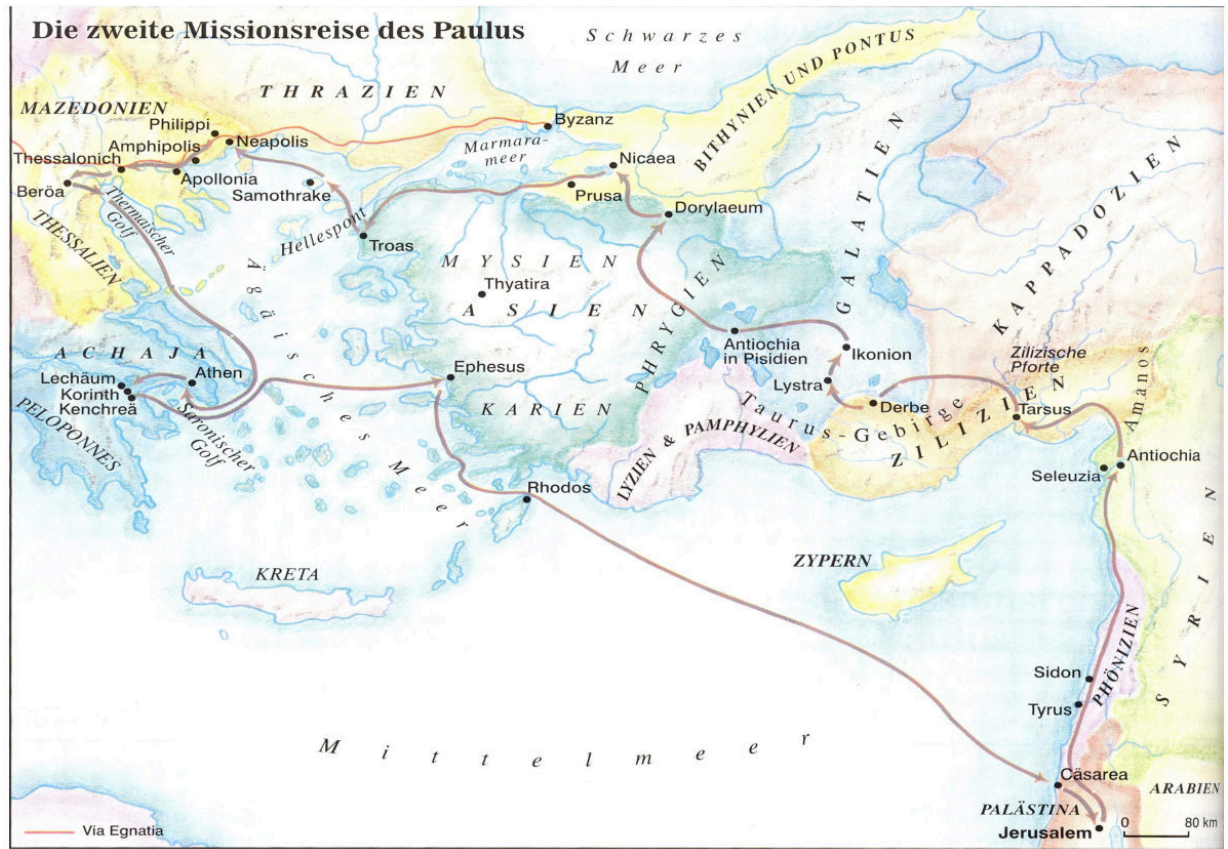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서신의 몇몇 단락이 특히 잘 이해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서신은 바로 이러한 영적·종교적 배경에서 계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에 아르테미스 신전의 유적을 찾는 일과 함께 에베소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www.wikipedia.de)

오늘날 에베소는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는 튀르키예의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형태를 띤 기독교의 증거는 이 도시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위치



바울과 에베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 처음으로 에베소에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떠났습니다(행 18:19-21). 그 후 3차 선교 여행(행 18:23-21:16)에서 그는 에베소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며 일했습니다(행 20:31).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위해 큰 일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약 54년과 55년에 고린도에 보내는 두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어쩌면 이미 가이사랴에서) 썼습니다. 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기간, 약 60-62년의 일입니다. 이 서신들은 모두 그의 투옥을 언급합니다. 서신들을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였습니다(6:21-22).

소아시아 전체와 그 너머를 위한 교두보로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사역은 복이 넘쳤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은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0-12).

또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행 19:20). 이와 관련하여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그는 여기서 여러 해에 걸친 체류와 섬김을 되새기며 자신의 사역을 묘사합니다(행 20:17-38).

디모데와 에베소

디모데가 여러 번 에베소에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은 바울이 그를 그곳에 남겨 두었습니다(딤후 1:3). 디모데전서(그리고 디모데후서도)는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서신을 보면 그곳에 거짓 가르침(영지주의, 율법주의 등)의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가 이를 돌보아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또는 교회의 전승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감독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과 에베소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 본문은 없지만, 당대 증인들의 증언은 있습니다. 고대 교회의 전승에는 요한이 아주 많은 나이가 되어서야 소아시아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는 2세기 중엽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우리 가운데”(곧 에베소에서) 살았던 증인이라고 전합니다. 소아시아 출신인 이레나이우스(Irenäus, 2세기 후반)는 여러 곳에서 소아시아에 살았던 사도 요한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서를 썼으며, 트라야누스(Trajan) 황제의 통치기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요한이 보낸 다른 모든 편지는 소아시아에서 그가 활동한 범위를 증언합니다.

또 다른 교회(가톨릭!)의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에베소로 옮겨 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지주의라는 위험한 가르침에 대해 쓰는데, 요한도 그의 서신들에서 바로 이 가르침과 싸웁니다.

결론: 대도시 에베소의 교회는 특별한 특권과 도움을 누렸습니다. 두 사도가 그곳에 머물렀고, 그들이 보낸 사람들, 곧 동역자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이 받은 서신들도 있었습니다.

주후 431년 에베소에서 교회의 제3차 공의회가 열렸고, 그 결정은 오늘날에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증거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서신을 쓴 계기

일반적으로 이 서신에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옳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 서신은 일반 서신, 곧 특별한 개인적 세부 사항이 없는 일종의 회람 서신입니다. 그러나 폭넓고 체계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늘의 신분에 대한 가르침을 펼쳐 보입니다. 에베소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신비 종교와 우상 숭배와 오컬트와 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는 영적 세력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력들을 불러내어 자기 이익을 위해 힘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계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신자들, 나아가 소아시아 전체의 신자들에게 이 세력들에 대해 알려 주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또는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새 신앙에 끌어들이지 않게 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그들의 마귀적 영향력을 경계하게 하는 것(영적 싸움)입니다. 거짓되고 낯선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골로새서에서처럼)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서신의 내용과 구성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뜻을 드러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개개의 신자, 그리고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목표에 이르게 하려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이미 지금, 이 시대에 신자들과 교회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서신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그려 냅니다. 이 신앙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곳 하늘에서 하나님 곁, 그분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그분 안에서, 머지않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곳, 하늘에 속한 곳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로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서신의 구성:

제1부: 1-3장 교리적 (교의적)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신분 - 구원의 직설법	
1장	
1-14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주에 향한 하나님의 뜻: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몫
15-23절	우리가 알도록 허락받은 것: 먼저 하나님 자신, 그다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미래, 그리고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
2장	
1-10절	그때와 지금 - 하나님의 구원: 영적 죽음에서 하늘에 속한 곳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구원의 신분으로
11-22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 둘이 한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된다
3장	
1-13절	이방인의 사도가 받은 특별한 직분: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14-21절	우리가 언제나,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에 대한 중보 기도와 찬양
제2부: 4-6장 실천적 부분 - 신자들의 삶 새 사람의 삶 - 구원의 명령법	
4장	
1-16절	하나 됨에 대한 권면: 몸의 은사와 지체들, 그리고 몸인 교회의 성장
17-32절	새 사람: 신자들의 전혀 다른 삶
5장	
1-21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실
22-33절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관계의 본
6장	

1-9절	부모와 자녀 – 종과 주인
10-24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영적 전쟁

주제별 고찰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주제별 중점에 따라 다룹니다. 이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보론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은 한 번 이상 나오며, 어떤 경우든 이 서신의 특징을 이룹니다. 서신의 내용과 목표와 의도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들은 서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늘에 속한 곳 –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늘의 한 조각, 하나님의 한 자리”)

“하늘에 속한 [곳]”(헬라어 *ἐπουρανίους* *epouraniois*, 복수)이라는 말은 이 서신의 메시지에서 중심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모든 권세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일상 속까지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 표현은 이 서신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베소의 특별한 종교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디아나 우상 숭배와 여러 다른 제의(마술, 주술, 오컬트)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을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입니다 (보이지 않음, 우리가 사는 차원과 다른 차원). 다른 하나는 공중의 하늘, 곧 대기 그리고/또는 천체들이 있는 우주입니다(보임).

이 서신의 첫 독자들, 곧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늘을 여러 층(대개 셋이나 일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여러 영적 존재(천사, 귀신, 권세 등)가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성경, 곧 구약의 계시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널리 퍼진 신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있었던 특수하거나 극단적인 신앙 흐름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나 생각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현실로 전제하지만,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동시에 영들의 세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곳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가 말할 때(엡 6:12), 이 싸움은 땅에서, 곧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서도 하늘에 속한 곳이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 삶 속까지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이 다른 차원, 이 영적 실재는 우리가 사는 차원과 교차하고, 그것을 꿰뚫거나 그 위에 겹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런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이 곳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한쪽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우리를 둘러싼 공중의 대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2:2).

바울은 “하늘에 속한 [곳]”이라는 용어를 다섯 번 사용하며, 언급할 때마다 새로운 측면을 열어 보입니다:

1. 1:3은 (오직) 그곳에서 신령한 복의 풍성함이 주어지고 받아진다고 말합니다.
2. 1:20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여 줍니다. 이 보좌는 하늘에 속한 곳의 중심이며, “하늘에 속한 곳의 한쪽 끝”을 보여 줍니다.
3. 2:6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곳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참된 집이며, 우리 미래의 소망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신분 또는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4. 3:10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개인으로서)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공동체로서) 그곳에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돕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 특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5. 6:12는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귀신들)과 우리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땅 위에서 악한 일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은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영역과 교차하며, 바로 그곳에서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하늘이 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곁,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곳]에”(… ἐν τοῖς ἐπουρανίοις *en tois epouraniois*)라는 표현은 이 서신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없지만 “곳”(또는 영역, 땅, 지역, 하늘 세계)이라는 말을 덧붙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 안에서”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어떤 것의 방식과 성격을 가리킵니다. 복은 하늘에 속한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용어에는 대조도 담겨 있습니다. 곧 하늘과 땅의 대조,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마도 후자가 이 추상적인 용어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길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용어의 유일한 측면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의 눈앞에서 가려지셨습니다(행 1:9). 다시 말해 그분은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아주 먼 곳으로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개념은 바울을 “하늘에 속한 곳에서”라는 개념으로 이끕니다. 이 연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땅의** 복이었습니다.

곧 자기 땅, 풍성한 수확, 자손, 건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없던 복, 사람이 이를 수도 없던 복이 문제입니다. 전에는 땅에 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곧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곳”이라는 표현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곁에 두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분을 통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시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영접을 받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눅 15:11-32). 우리는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영접되었으며, 그런 아들로써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왜 신령한 복이 하필 “하늘에 속한 곳에서”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신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떼려야 뗄 수 없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함께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며, 그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고전 15:48-49). 언제나 이 영역에 속해 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는 그들을 권세들과 통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천사, 곧 하늘의 존재입니다(빌 2:10).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늘에 속한 본질을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서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은 신약 전체의 계시입니다:

-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τὰ ἐπουράνι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만이 전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요 3:12)
-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나라**(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αὐτοῦ τὴν ἐπουράνιον/ ... 그의 하늘에 속한 나라 안으로)에 참여합니다(딤후 4:18)
-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κλήσεως ἐπουρανίου μέτοχοι) 안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히 3:1)
- 우리는 **하늘의 은사**(τῆς δωρεᾶς τῆς ἐπουρανίου)를 받았고, 그것을 맛봅니다. 곧 누립니다(히 6:4)
- 족장들도 이미 **하늘에 있는**(τοῦτ’ ἔστιν ἐπουρανίου) **본향**(πατρίδα)을 사모했습니다(ἐπιζητοῦσιν, 찾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히 11:13-16)
-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습니다(빌 3:20)

- (τὸ πολίτευμα ἐν οὐρανοῖς ὑπάρχει)
-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이 있습니다(골 1:5)
- (διὰ τὴν **ἐλπίδα** τὴν ἀποκειμένην ὑμῖν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
- 우리는 **위의 것, 곧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생각합니다(골 3:1-4)
- => 시들지 않는 **유업**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벧전 1:4) τετηρημένην ἐν οὐρανοῖς
-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고후 4:16-18)
-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고후 3:18; 행 7:55)

하늘이 열렸습니다 ...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감추어져 계시던 하늘이 이제 열렸다는 것(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의 유대인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하늘 사다리처럼 ...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신다는 것도 똑같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 사다리는 어느 방향으로든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요 1:51; 창 28:12).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바라봅니다. 그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동시에 아직 땅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3:17).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하늘에 속한 곳은 모든 복과 함께 이를테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곳은 몇 광년이나 떨어진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늘로 옮겨짐 ... 그리스도 안에서 ... 그곳, 그분 안에

우리는 신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위치 또는 신분을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곳, 그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의 승리의 자리를 함께 누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분은 이보다 더 높고 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문자 그대로, 몸으로도 그곳에 두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는 이것이 이미 지금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는 목표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성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우리는 이미 지금 하늘에 속한 곳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는 의회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뽑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대표 안에서 의회에 출석해 있고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 곧 권세의 중심에서 대표되고 대변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곳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 주는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거미는 물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수면에서 물속으로 가지고 내려간 공기 방울 안에서, 또는 그 공기 방울로 숨을 쉰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이 하늘의 세계로부터, 그 안에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삶의 조건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갈라놓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땅과 하늘에 속한 곳 사이의 갈라짐은 신자들에게는 이미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실 오는 세대에는 이 갈라짐이 온 세상에서도 끝날 것입니다.

신들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옛 신앙 ...

에베소 사람들의 옛 신앙에서 하늘에 속한 곳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결정하는 신들의 권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적대적인 존재였고, 사람들은 그들의 우월한 힘 때문에 그들에게 내맡겨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편으로 위험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큰 의미와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자기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오컬트와 마술, 그리고 주문은 신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바로 이 영역으로 옮겨졌을 뿐 아니라, 그곳의 세력들 위로 높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권세의 중심으로 옮겨졌고, 그 세력들은 더 이상 그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세력들 위에 설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는 별들보다도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복은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성격을 지닙니다. 이로써 이 복은 땅의, 물질적인 복과 대비됩니다. 이 복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땅의 복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땅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딤후 4:10). 그러나 땅의 복(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것을 때로 넉넉함과 혼동합니다)은 우리에게 약속되거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땅의 복입니다(딤후 6:8).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타락한 피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저주와 죄의 결과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채웁니다.

신령한 복은 풍성하고 넘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땅의 모든 부를 뛰어넘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이를 수 없던 것이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요와 사랑과 정결과 생명을 이루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영광 가운데 있는 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되신 한 사람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 보물 창고로 함께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감히 꿈꾸지 못했을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롬 8:32).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하늘의 보물, 바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에 대한 말을 마치 내용 요약처럼 서신 맨 앞에 두었다면, 우리도 먼저 이 서신 안에서 그 복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서신을 넘어 신약에서 비슷한 본문과 다른 복들을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구분합니다. 앞의 것은 보물에 이르는 길이자 통로이고, 뒤의 것은 보물 자체입니다.

이 특별한 서신을 두루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놀라운 복들을 만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도 때로 자기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민 13장). 그 땅의 풍성한 소출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 그렇습니다. 복의 일부는 앞으로 비로소 차지하게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고, 찾고, 바라보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가 장차 부요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부요하다는 의식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계 2:9). 여기서는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아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큰 재산의 소유자이자 상속자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가난하게 산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가 그것을 안다면 그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소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에서 두 번: 1:15-18; 3:14-19)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그 복을 알게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궤도의 신앙생활을 처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원하십니다! 같은 순간에 겪는 외적인 가난이나 박해도 이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미 - 그리고 아직 아니! 그러나 머지않아 “아직 아니”는 끝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른바 번영 복음은 모순입니다.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을 혼동하거나, 하늘을 앞당겨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물질적이거나 재정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찾기 시작해 봅시다. 11절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롬 8:17; 약 2:5). 그 유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셔서(히 1:2) 모든 것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지금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지만, 머지않아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곧 온 피조 세계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통치에 우리는 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곁에서 함께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분의 몸이며, 그 몸에 만물의 경영이 맡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의 복인데, 우리는 이미 지금 그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지평 앞에서 삽니다. 우리의 길은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입니다.

유업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유업을 확실히 보장하고 지급하기 위한 보증이자 계약금입니다(1:13-14).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소유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1:17). 성령은 우리가 그 부요함을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2:18).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3:16; 4:23, 30; 5:18; 6:18, 17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를 이루시고, 그 교제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꿰뚫으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4:3). 이 복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시며, 신적인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게(알아 가게) 하십니다(고전 2:12; 요 16:13; 14:17). 이 서신에서 성령은 13번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그 자신이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이시며, 동시에 하늘의 것들을 마음의 눈에 열어 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현실, 그 사실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께 자리를 내어 드리면, 그 현실이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을 함께 결정하고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얻으시는 곳에서만 그분은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성령께서도 우리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성령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하늘의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로써 아버지께 나아감과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2:18; 3:12). 이것은 신령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신령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합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특히 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의식 속에서 아들로써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늘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동의 관심사를 나눕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관심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든 기쁨과 모든

고통을 펼쳐 놓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는 특히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서신들에서 묘사합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영생, 곧 하늘의 생명, 아버지 집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교제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으신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모든 신자는 같은 생명을 나누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결속, 이 하나 됨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생명을 나누고 하늘에 속한 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서로 진심 어린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 대하며, 영과 혼과 몸으로 서로 돕고 지원할 때, 그것은 하늘의 한 조각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불화를 통해 이 복을, 곧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복은 우리의 실제적인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요함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일에 진지하게 나섭시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는 깨달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신분을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 굳게 서”도록 합시다. 마귀의 전술은 우리의 주의를 이것에서 돌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과 어려움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형편이 낮고 원하는 대로 살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이런 시선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속한 땅을 정복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차지하십시오! 이미 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사십시오!

선택(예정): 단지 논쟁거리일 뿐인가?

서신 맨 처음부터 에베소 사람들이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고(1:4), 아들이 되도록 예정되었다고(1:5)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서로 가까운 개념입니다. 앞의 것은 고르는 것을 묘사하고, 뒤의 것은 구체적인 의도를 묘사합니다. 물론 그 의도에 앞서 고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책으로 도서관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쟁점은 인간의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출구가 없는 까닭은 대개 “이것 아니면 저것”의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거나, 아니면 복음의 부름을 받고 회개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이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이성)로서는 상상하기 매우 어려운 진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예수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도 세 위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있는 인식의 한계는 삶의 실존적인 질문들과도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고난에 대한 질문,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 적어도 세상에 있는, 자기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미리 택하심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한된 사람만 고르셨다는 쪽을 택한다면, 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정당하게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나 자유로운 선택으로 회심할 수 있다는 쪽을 택한다면,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택하심은 죄인의 믿음의 결단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회개와 믿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고, 이것을 제 확신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택하심 안에서 일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겉보기에 모순되는 두 요소가 동시에 있다는 이 긴장이 설명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질문이 그렇듯이, 우리는 이 긴장을 견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성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비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로는 늘 나란히 달려야 하고 결코 서로 교차하지 않는 두 레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분의 주권도 그렇고, 회심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도 그렇습니다. 철로는 구속사를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구속사에서는 바로 이 두 측면이 늘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목표에 이르시는지, 그것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무도 결코 그분을 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르시는지는 신적인,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지평선에서 레일은 하나로 모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비밀도 밝히시고 온전한 것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고전 13:9-10).

이 **두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한 모든 사람의 온전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핑계 삼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들조차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면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C. H. 매킨토시(C.H. Mackintosh)는 하나님의 주권이든 인간의 책임이든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을 날개가 하나뿐인 새, 또는 노 하나로만 저어 가려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극 사이에 있는 긴장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 긴장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긴장을 해소하려 애쓰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엄청난 요소가 우리에게 작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큰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채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열심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 택함을 받았습니다(요 15:19). 그분의 선택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합니다(고전 1:27-28; 약 2:5).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작정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특별한 보호를 누립니다(롬 8:33).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무도 있습니다(골 3:12). 우리는 개개의 피조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요 1:13), 교회 전체로서도 택함을 받았습니다(엡 3:8-11; 벧전 2:9).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살전 1:4). 우리가 아는 한, 그는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얻지 못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더욱 힘써 일했습니다(딤후 2:10).

모든 신자는 모든 시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알려져 있었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되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며 거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들 됨과 자녀 됨: 그저 같은 것인가?

우리는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2:2; 5:6)이었고 "진노의 자녀"(2:3)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1:5).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5:1).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 수 있습니다(5:8). 자녀와 아들로써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아버지께 나아갑니다"(2:18; 4:6; 5:20).

바울 시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자녀가 아내나 종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성년이 되어야 아들, 곧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로써 그는 자녀와는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 서는 상대가 되었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로마법에는 아들로 삼는 입양도 있었습니다. 입양은 입양된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었고, 옛 가족 관계를 모두 영원히 끊었습니다.

신자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자녀입니다. 보통의 삶에서처럼 자녀가 아들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성장 과정을 보여 주지만(요일 2:13-17), 거기서도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장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소유인 이 두 호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서로 다른 측면을 묘사합니다.

자녀 됨은 태어남, 곧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 확신과 상속에 대해 말합니다(요 1:12; 롬 8:16-17, 21; 요일 3:1-2, 10; 4:2). **아들 됨**은 받아들여짐, 곧 입양, 영적인 장성함,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시작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남으로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입양으로 됩니다.

아들 됨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뢰의 관계입니다(롬 8:15; 갈 4:6).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위해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기뻐하시고(1:5), 그들과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엡 1장). 우리 몸의 구속이 우리의 아들 됨을 완성할 것입니다(롬 8:23). 그때 하나님 자신과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들 됨은 하나님의 징계(히 12:5-7), 거룩함(고후 6:17),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갈 4:7), 그리고 지금과 장래의 영광(히 2:10)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과 나누기 원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이 –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을 영원한 중심으로 하여 – 입양된 많은 아들들(과 딸들)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드러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요이 1:3). 그분은 언제나 그러셨고, 우리처럼 입양으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의 아들

됨의 본이시며 “원형”이십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맡아들이 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8:29).

사람으로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잉태되었고,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앉으라 – 행하라 – 서라: 하나님의 순서

이것은 중국인 워치만 니(Watchman Nee)의 복된 책들 가운데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는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합니다. 이 순서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과 일치합니다. 2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끕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도 앉아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 안에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돌려졌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옛것을 끝내고 새것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취소될 수 없게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하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서신의 4장부터는 1절의 표제가 적용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안식에서 시작됩니다. 행함은 이 위치에 이르려는 애씀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번에 받아들여졌다는 확고한 앎 속에서 날마다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삽니다. 더구나 이 구원을 잃을 위험을 안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앎 속에서만 우리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지운 책임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속사람의 세 번째 “자세”는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땅에 속한 우리 몸과 달리 세 자세를 모두 동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그는 결코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늘 일상 속에 있으며, 거기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입은 새 사람이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는 것, 굳게 서 있는 것이 옳습니다. 서라는 권면, 곧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은 우리가 옮겨진 그 위치, 우리가 놓인 그 충만한 복에서 원수와 세상에 의해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방금 이 위치는 잃어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그의 천사 군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들에 대한 앎과 충만한 복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구원의 직설법과 구원의 명령법입니다. 우리 구원의 객관적인 면은 영원히 손댈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면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지, 우리가 이 부르심에 참으로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서는 것”이 속합니다. “서는 것”은 구원의 신분, 충만한 구원과 복(또는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일상의 실제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교회: 언제부터 있었는가? (엡 2 + 3장)

이 질문은 언뜻 보면 근거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달리 묻자면, 이 질문이 도대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생겨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태어난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교회가 태어난 때는 그보다 30년 앞섭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신약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 세례로 생겨났습니다(고전 12:13). 예수께서 친히 예고하신 대로, 모든 신자, 곧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영적인 몸)으로 연합되었고, 이 몸은 하늘에 계신 머리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신약의 신자들에게 그러하듯이 성령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에는 아직 하늘에 계신 머리,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신자들이 속한, 아담 때부터 있던 교회나 회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제목의 질문에 아직 완전히 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3장 첫머리에서 글의 흐름을 끊고 삽입구를 넣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도 직분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이방인의, 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갈 2:7) 그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그에게 보여 주시고 말기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것을 이미 2장에서 짧게 묘사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더 이상 그분의 땅의 백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옛 하나님 백성의 지위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복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둘로 새로운 것을 지으십니다. 곧 한 새 사람과 새 성전입니다. 2장에서는 아직 눈에 띄지 않던 것을 바울은 3장에서 감동에 찬 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심은 이방인들의, 그리고 메시아를 죽인 죄를 지은 유대인들의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며, 비상 계획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이전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교회를 지으시려는 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이 뜻이 구약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찾아도 헛수고입니다. 모형론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가 생겨난 뒤에야 비로소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의 옛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역사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땅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넘겨받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새로운 것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며, 그런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만 멈춰 있을 뿐이며, 일정한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교회의 시대이며, 이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은 자신의 목표에 이르실 것이며, 그분의 땅의 백성에 대한 모든 약속과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교회의 역사가 끝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런 민족이 이 땅에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직 땅에 있는 동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종의 과도기, 성경의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늘의 신분을 확증하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에 속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서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로 잠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곧 한편으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요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미리, 또는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고된 새 언약은 교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잠깐 둘러보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감람나무에 비유됩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약속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누가 그것을 잃고 누가 그것을 얻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때 그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것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감람나무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족장들에게 약속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복의 영역을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복 아래 있었고, 그 정점은 인격으로 족장들의 복이셨던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잘려 나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나온 신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믿음으로 족장들의 복에 참여합니다. 그들도 상속자이며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원가지들은 믿지 않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다시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그때 그들은 민족으로서, 혈통적 이스라엘로서 한때 약속된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신자들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의미로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신분 안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같은 복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의 새로운 신분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습니다(갈 3:28).

감람나무 그림은 하나님이 친히 그리신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감람나무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새 언약에 이르는 족장들의 복의 체계를 나타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 역사의 진행입니다. 감람나무는 역사를 관통하는 일종의 복의 통로이며,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 통로는 하나님의 많은 생각을 포함하며, 교회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친히 자기 보좌의 감추어짐과 주권 가운데 쓰시는 그분의 역사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충만: 만물의 목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은 모든 독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넘치게 적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홍수 때처럼 사람들을 빠뜨려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풍성함으로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심고, 그들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때가 찬 마지막에 만물의 머리가 되시려고 나서실 때, 그들이 만물이 회복되는 날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충만”과 “채우다”라는 용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용어들은 이 서신에 여러 번 나옵니다:

- 그분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은혜의 풍성함(1:8)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분의 넘치는 충만함에서 주십니다.

- ...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1:23)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숨 막힐 듯한 특권을 가집니다. 그분이 언젠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 사람 예수를 취하셔서 그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곧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이로써 그분은 **사람으로서**(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해지십니다. 5장의 또 다른 그림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더 분명히 보여 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듯이,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와 하나가 되십니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는 충만하게 되시며, 우리는 영원히 이 연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며, 교회와의 이 연합 속에서 사람들과 천사들과 하나님께 언제나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로서 그분의 몸과 함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편재와 그분의 복의 이 도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3:19)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자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과 안식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며,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함에 우리가 땅에서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떤 종교들에서 믿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4:10)

이미 지금 그분은 만물을 채우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속한 곳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력들이 아직 횡포를 부리고 있어도, 구속받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피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머지않아 아무것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 ...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4:13)

개개의 신자만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자기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도 똑같이 이 역동적인 성장 과정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목표는 그리스도 자신의 충만함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그분이 교회를 채우시고, 꿰뚫으시고, 갖추게 하시고, 이끄시고, 복 주시며, 영광 가운데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 ...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5:18)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라는 이 권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표에 맞서 경쟁하는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치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바람으로부터 비어 있을 때에만 그분은 우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든 그 섬김을 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우리 삶의 실존적인 목마름이 해소되고(시 42:1-2; 요 4:13-14; 7:37-39),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그분의 목표에 이르십니다.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론과 에베소서: 정말 가능한가?

구약은 이 서신의 가르침에 대해 설득력 있고 이해를 돕는 본을 보여 줍니다. 이 가르침에서 신자들은 이미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일에서 모형으로 미리 그려졌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정탐꾼들이 이미 증언했듯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강한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간 하늘에 속한 곳에 해당합니다. 강한 원수들은 앞에서 설명한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해당합니다. 요단강은 그 땅에 들어가려면 건너야 했던 죽음의 그림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승리자이신 주 예수의 모형입니다(엡 1장).

이 모형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현재적이고 영적인 현실인지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속한 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곳에 대한 이 가르침을 지리적으로나 더구나 우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보면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내 마음에 거하시고 일하시는 그리스도 자신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3:17-19).

끝으로 모형론으로 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홍해)으로 세상(이집트)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광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이며, 믿음의 길 위에서 목표, 곧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곳, 그 영역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둘 가운데 하나만 해당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서는 둘 다, 곧 광야와 가나안이 동시에 해당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발은 광야의 모래 위에 있고, 우리의 머리,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하늘에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나 됨, 기능, 대표

이 서신에서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특성이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1. 지음 받은 만물 위의 머리로서(1:10, 22), 그리고 몸, 곧 그분의 교회의 머리로서(1:23)입니다.

머리(헬라어로는 다른 아닌 사람의 생물학적 "머리")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1. 하나 됨: 머리와 몸의 하나 됨입니다. 이 그림은 유기적이고 살아 있는 하나 됨을 말합니다.
2. 기능: 사람이라는 유기적 통일체 안에서 머리와 몸은 일정한 질서 속에 놓여 있고, 각 부분은 저마다 정해진 기능과 과제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머리가 맨 위에 있는 위계의 측면도 들어 있습니다.
3. 대표: 사람에게서 우리 기억에 대개 남는 것은 얼굴입니다. 머리는 사람 전체를 대표합니다(예: 여권 사진). 한 국가의 (최고) 수반인 연방 대통령은 세계의 다른 민족들 앞에서 대표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언급되는 곳에서는 거의 언제나 이 세 측면을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용어(kephale κεφαλή)가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사람과 짐승의 머리 외에도 뛰어난 것, 첫째 또는 맨 위 자리에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예: 엡 5:23 등). 또한 이 말은 강어귀, 샘, 어떤 일의 근원, 또는 한 시대의 시작을 가리키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들을 그 가족의 우두머리(머리)라고 부릅니다(예: 민 1:4).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도록, 곧 민족들 위에서, 또는 민족들 가운데서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도록 세우신 백성이었습니다(신 28:13). 여기서는 위계적인 자리보다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머리"라는 용어가 그리스도께 적용됩니다. 그분이 머리라고 불릴 때, 그분은 언제나 사람으로서 그러하십니다. 머리로서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성하신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영화롭게 되시고 보좌에 오르신 사람으로서 머리이십니다.

- 그분은 "모퉁이의 머리", 곧 모든 것이 그에 맞추어 정렬되고 정렬되어야 하는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로 붙드십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 곧 그리스도를 버린 뒤에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온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행 4:11-12).

-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도 우리는 아담과 대비되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를 봅니다. 거기서 문자 그대로 머리에 대해 말하지는 않지만, 아담이 죄에 빠진 인류의 머리, 곧 시작이자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롭고 구속받은 인류의 시작이자 창시자이십니다.
- 그리스도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순절에 모든 신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고(고전 12:13), 하늘에 계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곧 몸의 머리와 연합되었습니다. 몸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한 하늘의 근원이십니다. 교회는 땅에서 자기 기능을 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근원에서 받습니다. 머리의 역할은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를 위한 본이기도 합니다. 내 머리는 내 몸을 지배하지 않고, 내 몸은 내 뇌에 순종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의 본질은 유기체의 하나 됨, 전체가 저절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뇌의 명령은 강요나 예속 없이 저절로 실행됩니다. 뇌가 조종하기 때문에 머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 한번 말했듯이, 몸 없는 머리도, 머리 없는 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 머리,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회는 하늘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대표됩니다.

장차 올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새 창조에서 만물의 머리의 세 측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 하나 됨: 피조 세계 안에 더 이상 갈라짐이나 깨어짐이 없고,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게서 갈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머리 없이 만물은 죽은 것과 같았고, 하나님께 쓸모없고 가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몸과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2. 기능: 머리와 몸의 하나 됨은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온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므로, 모든 것이 주 예수의 각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능할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로서 그분은 강어귀처럼 멈출 수 없고, 넓고, 깊은 복의 물줄기를 만물 속으로 흘러보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복의 충만함에 잠길 것입니다.

3. 대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만물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그리스도를 보시는 그대로, 그때 그분은 만물을 보실 것입니다. 전에 없던 이 상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섯 가지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 오늘날에도 있는가?

에베소서 4장의 한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지난 오늘날에도 이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유감스럽게도 한 몸의 하나 됨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에 은사들을 주셨다는 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교회의 머리이심을 증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두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1. 모든 사람이 은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4:7). 2.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주제에 대한 다른 두 주요 본문, 곧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도 당연히 함께 살펴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가장 중요하거나 어쩌면 가장 큰 은사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 은사들이 사람과 직접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이 무엇을 뜻하며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 곧 다섯 가지 모두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인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두 은사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12명에 1명을 더한 정해진 수였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성경의 정경이 완결되었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사역, 곧 그들이 교회에 준 선물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글, 곧 신약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견해는 다섯 가지 은사 모두가 오늘날에도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유효한 말씀으로 읽힙니다.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다섯 (사람) 은사와 각 지체가 가진 은사들의 도움으로 기능합니다.

바나바가 한번은 바울과 함께 사도라고 불리고(행 14:14),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여러 사도에 대해 말하며(살전 2:6), 안드로니코와 유니아가 어쩌면 사도들 가운데 꼽힐 수 있다는 사실(롬 16:7)은, 사도가 12명에 1명을 더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허락합니다.

이 견해에서 오늘날의 사도는 물론, 예를 들어 신사도 교회(Neuapostolische Kirche)에서 하듯이 사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의 사도는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니다. 어린양의 열두 사도는 영원한 도성의 기초에서 영원히 특별한 지위, 또는 기념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는 첫 세기와 같은 의미를 더 이상 가지지 않지만, 그들의 섬김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사도를 부흥의 시작에 서 있는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기독교계의 지도자들로 봅니다. 물론 그들에게 사도적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의 성장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예텔(Thomas Jettel)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 말 (apostolos ἀπόστολος 보냄을 받은 자, 사절)은 신약에서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수께서는 열두를 자신의 첫 사절로 세우셨다. 바울도 주님께 직접 특별한 사절로 세움을 받았다(갈 1장; 고후 12:12). 야고보도 특별한 지위를 가졌던 것 같다(고전 15:7; 갈 1:19). 이들은 기초를 놓은 사도들(엡 2:20; 3:5), 말하자면 첫째 등급, 첫째 서열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메시지를 주님께 직접 받았다. 그러나 신약은 사도라는 개념을 그들에게만 한정하지 않는다. 바나바(행 14:4; 갈 2:8-9 참조), 실라와 디모데(행 17:1, 4; 살전 1:1-2; 2:6-7 참조), 디도(딤후 1:5; 3:12) 같은 다른 사람들도 더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불린다. 그들은 같은 등급과 권위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기초를 놓은 사도들과 비슷한 활동을 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요 교사였으며, 새로운 무리에게 길을 보여 주었고, 교사로서 여기저기 다녔다. 그들의 활동은 지도하는 활동이었지만 한 장소에 매이지 않았다. 이 무리를 '선교하는 교사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된 세 (은사) 본문(엡 4장, 고전 12장, 롬 12장)이 모두 이 은사를 포함한다는 것만 압니다. 그 밖에 신약의 선지자는 다음 본문에만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3: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5: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첫 세기의 선지자들은 아직 신약이 없던 동안 진리를 드러낸, 곧 전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 야고보와 유다처럼 그들의 서신이 신약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약 정경이 완결된 뒤 오늘날에는 이 섬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섬김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 이 점에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닮았습니다 – 시대정신을 알아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기독교계 안의 위험한 경향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픈 곳을 손가락으로 짚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섬김은 권면입니다. 그들은 장래의 일을 예언하지 않으며, 새로운 진리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선지자들의 섬김이 아니었고,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의 섬김도 아닙니다.

새 사람: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종교도, 교육도, 정치도, 유전학도 새 사람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런 시도가 거듭되었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어떠했고 오늘날에도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저지르는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수리"하거나 "개혁"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도 그것을 이룰 수 없었고, 오히려 사람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옛 사람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옛 사람의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옛 사람의 심판과 죽음을 짚어지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새 사람이 나옵니다 –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 이 새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4:20-24; 롬 6:1-11; 갈 5:16-26). 이것은 먼저, 그리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 곧 속사람에 관한 것이며, 아직 그 몸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 삶의 태도, 의지, 그리고 감정에도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것이 그 실제적인 결과에서 마치 우리가 단번에 온전하게 된 것처럼 즉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것은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어지며, 자라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살아 있는 말씀의 능력이 예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며, 이 새롭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그것에 기대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온전히 책임을 지며, 이 새 사람에 맞게 행하고, 처신하고, 결정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힘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는, 곧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새 사람은 거듭남 때부터 나의 새로운 인격이지만, 옛 환경 속에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고 영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 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삶의 관계, 또는 사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장 1-16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기서 새로운 삶은 자기를 낮추고, 교회 생활에서 자기 뜻을 관철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 행동은 교회의 실제적인 하나 됨을 지키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체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돕는 책임을 함께 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4장 17-24절: 세상과의 근본적인 차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세상 속의 삶과, 하늘 아버지와 아들로써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보다 더 큰 대조는 없을 것입니다. 두 삶의 방식이 지닌 의미의 총만함과 지속성은 낮과 밤처럼 다릅니다.

4장 25-32절: 새로운 삶을 위한 계명: 말하기, 일하기, 용서하기

바울은 새로운 삶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길을 열어 가는지 여러 세부 사항을 보여 주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떠드는 것, 격분과 악독은 참된 의미와 사랑이 없는 옛 삶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긍정적이고 덕을 세웁니다. 그것은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고 위로 끌어올립니다.

5장 1-14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농담, 성, 빛과 어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농담, 비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의 더러움과 추잡함을 즐기는 것을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듣지 않습니다. 성은 귀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깨지기 쉬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과는 더 이상 자발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과 낮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5장 15-21절: 세월을 아끼기, 술, 교회의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특별한 순간들을 주십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계획 없이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 그들 안에서 새로워진 생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잘 생각하여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은 사람을 둔하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지 않습니다.

취하게 하는 것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득 찬 마음에서 참된 마음의 찬양과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덕을 세웁니다.

5장 22-33절: 남편과 아내의 결혼 –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은 저절로, 또는 자동으로 잘 굴러가지 않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당시에 아내는 소유물이었고, 아내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고대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아내들을 이런 상황에서 이끌어 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능가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한편 아내들은 이제 복음의 빛과 자유 안에서 남편에게 반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몸으로서 머리(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행동은 새로워진 마음의 확신에서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이루어집니다.

6장 1-4절: 자녀와 아버지

자녀는 믿든 믿지 않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여섯째 계명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유효하며, 부모와 자녀의 생명과 복을 위한 계명입니다.

아버지들, 곧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그러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용기를 얻고 자라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저 장성하여 언젠가 독립적으로 살고, 또 그들 나름대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6장 5-9절: 일의 관계: 주인과 종,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오늘날에는 그런 형태의 노예 제도가 더 이상 없고 복음의 영향 덕분에 폐지되었지만, 우리는 이 권면들에서 오늘날의 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동시에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땅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상사를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도 어떻게 주님과 복음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6장 10-20절: 모든 전선에서 벌어지는 영적 갈등

끝으로 바울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호소이자 요약으로서,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전선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이 서신에서 삶의 모든 상황을 다룰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보여 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과 위험 속에서 주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자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인격적인 영적 세력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서신은 신약에 없습니다. 다른 서신들,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이에 대해 말하지만(예: 롬 8:38; 골 1:16; 2:15; 뱀전 3:22), 이만큼 자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 봅시다. 이 존재들을 언급하는 모든 본문을 인용합니다:

- ... 하나님이 그(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곳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πάσης ἀρχῆς *pases arches*)와 **권세**(ἐξουσίας *exousias*)와 **능력**(δυνάμεως *dunameos*)과 **주권**(κυριότητος *kuriotet0s*)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onoma*)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1:21-22).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인격체 위에 높이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위는 그들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지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하나님 오른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 ...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2)

이 세력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구체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정부의 중심부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곧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 세력들에게 내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곧 마귀적인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이 존재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두머리라면, 그것은 마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마 25:41).

- ...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곳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3:10)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그 결과인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선포로서 제시됩니다. 세력들은 놀라고, 이를 갈며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며, 교회는 그분의 “전리품”입니다. 세력들은 졌습니다.

-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로부터 ...(3:15)

언뜻 보면 여기서는 이 세력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도 피조물이며 창조주에게서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세력들이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며 (전)능한 신들도 아니고, 창조주께 복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마술에서는 영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거나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4:8)

여기서도 연관성이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힘은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은 완성되고 승리한 구속 사역 뒤의 개선 행진입니다.

- ... **마귀**(**διάβολος** **diabolos**)의 간계(**μεθοδείας** **methodeia**)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ἀρχαί** **archai**)과 **권세들**(**ἐξουσίας**)과 **이 어둠**(**σκότος** **skotos**)의 **세상 주관자들**(**κοσμοκράτωρ** **kosmokrator**)과 하늘에 속한 곳에 있는 **악의 영들**(**πρὸς τὰ πνευματικὰ τῆς πονηρίας** **pneumatika tes ponerias**)을 상대함이라 (6:11-12)

여기서 처음으로 세력들과 관련하여 마귀가 언급됩니다. 그는 이 세력들의 우두머리, 곧 “장군”입니다(마12:22 이하 참조). 이로써 세력들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들이 언제나 원수이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해치려고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째서 이 주제가 이 서신에서 중심 주제가 되었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계몽된” 근대나 탈근대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곧 그 시대, 그 도시,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사회는 우상 숭배의 제의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모든 사회 계층에 이르기까지 종교로 가득 차 있었고, 바로 그 계층들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삶은 로마인들이 디아나라고 부른 아르테미스 숭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그림 참조). 또한 에베소는 마술과 오컬트 관습의 중심지였습니다. B. M. 메츠거(B.M. Metzger)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모든 도시 가운데 에베소는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온갖 종류의 마술사와 주술사와 사기꾼에게 단연 가장 매력적인 곳이었다.**” 누가는 (아래 참조)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주문과 오컬트 내용이 담긴 이런 마술책을 많이 불태웠다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나름의 마술이 있었고, 그들도 이 영적인 어둠에 한몫을 했습니다. 유대교와 헬레니즘과 로마의 제의가 뒤섞이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혼합주의). 여기에 점성술, 곧 별이 운명을 정한다는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그것들이 삶을 결정했고, 위협적이고, 실재적이며, 요구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에서 참으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바울이 언급한 세력들이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전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교두보이자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력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문을 외워, 자기 목적과 이익을, 특히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 줄 일을 하도록 이 세력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세력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편재” 때문에 아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세력들은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세력들과 같은 수준에 계신가, 그들보다 우월하신가, 아니면 오히려 열등하신가? 그들은 아직도 세력들에게 내맡겨져 있는가? 세력들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제의들을 새 신앙과 함께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이 시대는 다른 여러 예와 더불어, 사람들이 신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아이티와 아프리카의 부두교 제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이 얽매임과 두려움이 깨어집니다. 이런 제의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미치는 신들의 영향은 서구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비록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뿐 똑같이 실재합니다. 그곳, 아이티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지구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신들을 믿으며, 신들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람들이 이런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속박 속에 붙잡아 두는 데 있어 마귀가 이미 앞서 있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속박과 어둠의 권세가 대부분 귀신 들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세상과,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2:2). 세상의 체계는 마귀가 조종하며, 이로써 이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 자신이, 마땅히 복종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공중, 곧 우리 바로 주변에서 활동하는 악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게, 이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강화할 온갖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모든 면에서 해를 끼치려고 중요한 요충지들(정부, 학교, 교육, 기술, 여가)과 자연에도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의 규모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에 견줄 만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노리는 주요 공격 대상은 물론 그들의 권세에서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무엇보다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그들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 천사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를 열거할 때, 그는 사람들과 제의들 자체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쓰던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존재들에 관해서 그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실재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하지 않는 일은, 천사 세계의 위계를 펼쳐 보이거나, 마귀적 간계를 생산하는 마귀의 기업의 조직도를 그려 보이는 것입니다. 용어들을 보면 어떤 위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천사 세계에 그런 위계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것만 말하며, 강하고, 그러므로 사람보다 우월한 피조물들의 인격적 실재를 그저 전제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력들이 그리스도께 복속되었다는 것과 신자들이 그들의 독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신자를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귀신적인(세속적이고 죄악된) 영향에 대해 최고의 경계를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이런 간계를 드러내고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승리자, 곧 높임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수신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력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위치를 의식적으로 살아 내도록 해 줍니다.** 이 느낌을 우리는 아마 희미하게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시대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자체가 천사들이 민족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다고 전합니다. 다니엘 10장에는 군주들, 곧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왕국의 천사적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카리스마적인 인격과 그의 급격한 부상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26; 32:8(칠십인역과 고대 라틴어 역본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대로"로 읽습니다)에서는 이것이 모든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민족들의 신들은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우상들 뒤에는 귀신들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고전 10:19 이하).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19장)에 있는 누가의 자세한 보도는 위에서 한 말을 확증합니다:

"그(바울)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강론하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믿지 않고¹ 무리 앞에서 이 도²를 비방하자, 그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 범상치 않은 능력을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나갔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유대인 마술사 가운데 몇 사람도 악한 영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시험 삼아 말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둘을 제압하고 이기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상처를 입은 채 그 집에서 도망쳤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알려졌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알렸다. 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들을 모아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 값을 계산해 보니 은 오만이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있게³ 자라며 퍼져 나갔다⁴."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사도행전 19:23-40

"그때쯤 이 도⁵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르테미스의 은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별이를 주고 있었다. 그가 그 직공들과 이 일에 종사하는 일꾼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풍족한 살림은 이 별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천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하찮게 여겨지고,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여신의 위엄도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소리쳐 말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은 바울의 여행 동반자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한마음으로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또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 관리⁶ 몇 사람도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외쳤다. 모임이 혼란에 빠져 대부분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내세우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 앞에서 변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두 시간쯤 외쳤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 시가 큰 아르테미스와 하늘⁷에서 떨어진 신상의 신전 지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니, 여러분은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데려온 이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훔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닙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일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정식 민회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 없이 일어난 이 소요 때문에 우리가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회에 대해 해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영적 전쟁, 그런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 관한 지시는 서신의 실천적 부분을 마무리하는 여운이라기보다 그 정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일종의 요약하는 맺음 연설입니다. 그것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장군이 병사들에게 하는 연설에 견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긴박함을 제대로 가늠하려면, 전투를 앞둔 이 극적인 긴장을 조금 눈앞에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바울은 군인, 아마도 로마 군인의 그림을 듭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 에베소의 거리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이 그림으로 그는 전쟁의 현재성과 잔혹한 현실을 강조하며, 그것은 영적 싸움에도 해당됩니다. 사실 그는 여기서 경기장에서 벌이는 씨름을 가리키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으로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곳을 하늘의 경기장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형론에서 우리는 이미 당시 가나안에서 실제로, 문자 그대로 벌어진 싸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곳에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을 상대한다고 말합니다(6:10-20). 그림을 그대로 이어 가자면,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가나안에서 사는 것, 곧 하늘에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살아 내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막으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복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게, 그것을 살아 내고 증언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세력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메마르게 하고, 우리가 떠난 이 세상 풍조 속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맞추어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의 증거와 복음의 증거가 죽습니다. 그리로 가는 길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죄입니다.

기억해 봅시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강력하고 수많은 천사적 세력들 위로 단번에 높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거의 공감하기 어려운 안도이자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협은 아직 있었지만, 회심하기 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적 세력들은 이제도 여전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신자들이 다시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높은 승리의 위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치를 세력들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지만, 이 위치 안에서, 또는 이 위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귀의 폭력이 아니라 그의 간계였습니다. 이런 간계는 세상에서, 모든 장소와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결혼과 가정에서, 직장과 교회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최고의 주의와 집중이 요구됩니다. 공중, 곧 우리 바로 주변에서 움직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넘어짐과 패배를 위해 일하는 실재하는 존재들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강하며, 패배한 이 세력들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밖에서는 우리에게 아무 기회도 없습니다. 이 존재들, 이 세력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전신 갑주에서 분명해집니다. 거기서 우리의 무기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원수가 거짓, 불의, 불화, 불신앙과 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수가 겨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도덕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적인 하늘 군대의 악한 영향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반드시 귀신 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향은 교활하고 유혹적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경건하게 변장하고 나타나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나 지역에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우리가 공격하여 그들과 맞선다는 의미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 운동에서 행해지는 이런 종류의 전쟁은 바울의 이 본문에서 결코 끌어낼 수 없습니다(다른 어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의 오컬트와 주술과 마술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싸움은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든 귀신들을 향한 것이든 십자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과 가정과 교회 안의 불화를 통해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민감한 곳을 치려는 싸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세력들에 대한 승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귀신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는 것도 언급해야 합니다. 특히 주술이 문화의 확고하고 깊은 일부여서 귀신 들림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세력들 위로 높여진 사람들은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귀신들의 영향은 신자들의 삶에도 미칠 수 있지만, 오컬트적인 얽매임보다는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 미칩니다.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과소평가합니다!

모든 죄나 세상에 맞추어 사는 모든 일을 이 세력들과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덤불마다 귀신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영적 세계입니다. 그것은 안에서 오는 영향, 밖에서 오는 영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한 초자연적인 영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특징을 가지며, 어떤 종류의 싸움일까요? 바울의 지시를 보면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능히 서는 것", "대적하는 것",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하며, 우리 믿음의 보화와 경험을 포기하거나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검입니다. 그러나 검은 근접전에서 방어하는 데에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묘사에는 공격적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둠의 나라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복음은 마귀에게서 그의 노획물을 빼앗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라는 좋은 신발은 복음 선포의 싸움에서 기동성과 움직임을 보여 줍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대열은 주님의 군대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동료 전사로서 싸웁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짊어 두어야 합니다. 전신 갑주는 새에게 깃털이 자라듯이 우리에게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에베소와 골로새

다소라도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 도시의 교회들에 보낸 서신들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나 평행 본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두 서신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비교 연구는 충분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언급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일 수 없는지 찾아내는 것을 자기 과제로 삼은 성경 비평 신학은,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며, 이 골로새서가 다시 에베소서의 저자(그 역시 바울이 아님)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많은 이론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신들의 서두와 중간과 끝에서 바울을 저자로 밝히는 성경 자체의 증언을 믿습니다.

약 180 km 떨어져 있던 두 교회가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서신에는 여러 평행 본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문헌(일부):

Arnold, E. Clinton, Downers Grove, 1992, Powers of darkness: principalities & powers in Paul's letters

Arnold, E. Clinton, Eugene OR, 1989, Power and Magic, The concept of power in Ephesians

Blatt, Helmut, Marburg/Lahn, 2002, Das Geheimnis der geistlichen Waffenrüstung

Elberfelder Übersetzung, Hückeswagen, 2005

Ellicott, C.J., London, reprint 2004, A Bible Commentary for Bible Students, Volume 8

Grant, F.W., New Jersey, 1901, The Numerical Bible,

Greijdanus, Dr. S., Kampen, 1932, Korte Verklaringen, Deel 12

Lee, Witness, Stuttgart, 1980,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Lincoln, William, Glasgow, 1980, Assembly Writer Library, Vol.II

House, H. Wayne, Marburg/Lahn, 1983, Chronologische Tabellen und Hintergrundinformationen zum NT

Keener, Craig S., Neuhausen, 1998 (1993 Inter Varsity Press), Kommentar zum kulturellen Umfeld des NT

Kelly, William, Oak Park,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Kettling, Siegfried, 1992, Gießen, Typisch evangelisch – Grundbegriffe des Glaubens

Martin, P. Ralph, Wuppertal, 1985, Brockhaus Kommentar zur Bibel

Medema, H.P., Vaassen, 1991, De nieuwe Mens: Commentaar op de Brief van Paulus an des Efeziërs

Remmers, Arend, Hückeswagen, 2004, In Christus gesegnet, Eine Auslegung zum Epheserbrief

Smith, Hamilton, Edingburgh,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An Expository Outline

Stadelmann, Helge, Neuhausen Stuttgart, 1993, Der Epheserbrief, EDITION C-Bibelkommentar

Stott, John R.W., VTR, Nürnberg 2001, Die Botschaft des Epheserbriefes

Schmalenbach, Hanna-M., Marburg/Lahn, 2007, Frausein zur Ehre Gottes im Kontext verschiedener Kulturen

Tenney, Merrill C., Marburg/Lahn, 1979, Die Welt des Neuen Testaments

Wjst, Walter, Dillenburg, 1999, Ephesus – Aufstieg und Fall einer Großstadtgemeinde

Hoehner, Harold W., Michigan, 2002, Ephesians, An Exegetical Commentary

Peters, Benedikt, Berneck, 1991, Pulsierendes Leben, Ein Gang durch den Epheserbrief

Peters, Benedikt, Berneck, 1989, Dämonische Verstrickungen, Biblische Befreiung

주

1. 또는 순종하지 않고.
2. 곧 그리스도인의 길, 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
3. 다른 사본은 "이와 같이 말씀이 주의 능력 가운데 자라며"로 읽습니다.
4. 또는 힘 있게 나타났다.
5. 곧 그리스도인의 길, 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
6. 곧 종교 축제도 말아 보던 백성의 대표들.
7. 직역하면 제우스에게서.